



함께 걷자! 프로젝트

일본성공회 동일본 대재해 피해자 지원

소식지
제 20 호
2013년 5월 1일 발행

△ 가마이시 이재민 지원 센터에 모이다

▲ 가설 주택의 휴게실 프로그램의 한 토막

△ 가와나카시마 가설 주택에서

▲ 훗코리 카페는 가설 주택의 분들에게 인계되었다.
사진은 성공회 직원, 자원 봉사자와.

▲ 내 집에 돌아가고 싶지도 방사능 오염
지역이므로 돌아갈 수 없는

▼ 경계 구역의 토미오카 마을
안을 확보하는 타조



가마이시

오나하마

현재의 “함께 걷자! 프로젝트”는 2011년 5월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2년간의 활동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 향후 일본 성공회로서의 대처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동안, 프로젝트에서도 검토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2년간의 노력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기어체인지”를 하면서 “함께 걷기”를 계속하고 싶어, “파트 II”를 향한 구상을 굳혀 왔습니다.

함께 걷자! 파트 II를 향해

가마이시 · 오나하마베이스에서 보았던 것

- ✎ 예비하라 유우지
(가마이시 이재민 지원센터장)
- ✎ 미야타 유조
(오나하마 봉사자 센터-사무국장 보좌)

함께 걷자! 파트 II 를 향해

—— 토호쿠 교구의 행보와 “방사능, 원전, 후쿠시마”의 것 ——

현재의 “함께 걷자! 프로젝트”는 2013 년 5 월말 종료하고, 그후 “함께 걷자! 파트 II”로 옮겨갑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주축으로 활동합니다.

◆“함께걷자! 토호쿠”(가칭)

하나는 토호쿠 교구로서의 행보입니다. “함께 걷자! 토호쿠”(가칭)로, 하나의 거점으로 “센터 신치” 활동을 계속하며, 필요한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토호쿠 교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 뿌리를 두면서 꾸준히 계속 가능한 방법으로 기도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담 직원도 두고, 피해 지역 방문과 순례, 기도의 기회도 넓혀 가고 싶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원전과 방사능에 대한 특별 문제 프로젝트”

다른 하나는 2012 년의 총회 결의인 “원전없는 세상을 바라며”의 성명에 근거해, 원자력 발전, 방사능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높이고, 현재의 “후쿠시마”의 상황을 세계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실제로 고통받는 이재민 분들에게 다가 가려고 하는 활동입니다.

어린이들의 리프레쉬 프로그램 및 기타 지원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원전과 방사능에 대한 특별 문제 프로젝트”라고, 지금까지도 오나하마, 다른 후쿠시마현 교회를 거점으로 임해 온 이재민 지원 사역, 그 양면을 포함해, 재차 일본 성공회로서 큰 노력 이 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걷자! 프로젝트”는 6 월부터 9 월까지 잔무 정리 등 단계적으로 종료 작업을 실시해 갑니다. 또한 가마이시의 “피해자 지원 센터”는 개소에서 2 년, 3 번째 여름을 맞는 8 월 말까지 기존대로 활동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다음호 뉴스 레터 등을 통해, 향후 전해 나가고자 하오니 부디 기억해 주세요. [본부장 주교 가토 히로미치 (도호쿠 교구)]

가마이시 오나하마 베이스에서 보았던 것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오나하마에서 “오나하마 성 디모데 자원 봉사 센터”로서, 이와테현 가마이시에서는 “가마이시 피해자 지원 센터”로서 각각 2011 년 5 월과 8 월에 베이스가 개설되어 지역에 뿌리 내린 활동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가마이시 베이스는 시내의 수십 개소의 가설 주택과의 연계, 체조 프로그램 및 요리 대회 등의 지원 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오나하마 베이스가 연결되어 온 가설 주택은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에서 20 km권 내에 있는 후쿠시마현 오쿠마 마을 · 토미오카 마을에서 대피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각 베이스에서 지역사회, 직원, 자원 봉사자 간의 쌓아온 관계란 어떤 것일까요?

釜石

희망이라는 이름의 지원

에비하라 유우지
(가마이시 이재민 지원센터장)

대지진으로부터 2 년이 경과했지만, 여전히 피해 지역 가마이시에서 복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복구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 이재민은 2 년이 지나간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을 안고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을 강요 당하고 있는 것이 피해자의 현실입니다. 그런 이재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이라고 해도 다양 합니다만, 우리 같은 작은 지원 단체도 작은 희망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희망을 밝히길 계속한 우리의 1 년 7 개월의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설 주택 담화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주 또는 격주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가설이 5 곳, 부정기적으로 월 1 회 정도의 프로그램 개최에 들어가는 가설이 10 곳, 이러한 가설 분들은 우리의 활동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자원 봉사자와 주민간의 교류가 깊어 지기에 지탱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결코 자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위에 동료와 있고, 지금 더 자신을 기억하고 지탱해 주려는 봉사자가 있다는 것을 리얼리티를 가지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더미에서 작은 희망이 커져 갑니다. 또한 우리의 프로그램은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을 소중하게 프로그램 구성합니다. 주민끼리 공동으로 뭔가를 하고,

자원 봉사자와 공동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인연을 키우고, 작은 희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커뮤니티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대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에 습격 당해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도와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도움의 본질입니다. 또한 현대 복지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지역에 자신을 위해 일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지, 지금의 센터처럼 자유롭게 방문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피해를 입은 도시에서 싹튼 새로운 가치가 교회 일로 따르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사역이 사람과 사람을 매개로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小島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자와 함께 울라**

미야타 유조

(오나하마 봉사자센터 사무국장 보좌)

“상실” 사실 상실 경험이 있으면, 시간과 함께 다음 단계로 행보가 시작된다.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우리 마을” “재미” 그 모든 것이 3월 11일 상태에 머물고 있는 후쿠시마현 오쿠마 마을 · 토미오카 마을.

“상실”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손실을 강요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2년을 걸어 왔다. 시골의 큰 집에 살고 있었는데, 혼자 산다는 이유로 다다미 한 칸 조립식에 산다. 집에 돌아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돌아가도 집에는 신을 신은 채 오를 수 밖에 없다. 2년 사이 방치된 마을과 집은 매일 썩어가고 있어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돌아 오기는 커녕 바리케이드로 묶여 버린 집도 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을 사는 분들이 아직도 수 만명 이라는 숫자에 이른다.

오나하마 성 디모테 자원 봉사 센터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원 봉사 센터로 활동해 왔다. “물건을 나눠주지 않는다” “호별 방문을 하지 않는다” “이벤트를 기획하지 않는다” “포교를 하지 않는다” 단지 옆에 있는 일만을 생각하는 활동은, 서로의 관계를 대등하게 하고, 서로가 안고, 지지 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3월 11일 그대로 시간이 멈춰 있는 이재민과,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해당 지역, 그리고 맹렬한 속도로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 오쿠마 마을은 30년, 토미오카 마을은 5년 이상 귀가 곤란 지역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들을 기만하지 않고, 쌓아 온 신뢰와 우정 관계를 앞으로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오나하마 성 디모테 교회의 사명으로 방사능 재해의 와중에 있는 분들과 또한 동일한 방사능 재해의 와중에 있는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지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으로서 서로 지지하는 관계를 영원히 계속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walknow!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가?

프로젝트가 어디를 누구와 걷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지금까지 소개한 프로그램의 후속 등 현재 활동 모습을 전하겠습니다.

■외국인 대표자 회의

2013년 1월 26~27일 지금까지 외국 국적의 이재민 지원 활동으로 만나 온 각 커뮤니티의 대표를 센터에 초청 대표자회를 실시했습니다. 모인 것은 일본인 가정에 시집와 지역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뿌리 내려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모임은 개개인의 개인사를 이야기 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자가 안고 있는 과제를 공유하고 상황을 변화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워크숍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과제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 이혼 서류, 모자 가정 수당, 아동 수당 등의 절차가 어려움.
- 언어 문제로 노동 계약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용과 노동 문제 상담회를 개최해 주었으면 한다.
- 지진 재해에 의해 친구와 이웃이었던 사람과 헤어지고, 가설 주택에서 새로운 인간 관계를 쌓는

것을 좀처럼 하지 못하고, 방에 틀어 박혀 버린다.

- 각 지역에 이주민 센터를 만들고 싶다. 거기에 사는 외국인끼리 협력하여 부흥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

대표자회의 개최를 계기로 이와테현에 사는 참가자들이 프로젝트의 외국인 피해자 지원 담당자와 함께 이와테현 국제 교류 협회를 방문하여 향후 현의 지원 체제에 대해 상담 할 수 있었다. 어학 교실 장소 제공 등 그녀들의 희망에 따라 현에서도 각 마을에 지원 요청이 가능한,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자신과 지자체와의 가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입니다.

프로젝트에서는 대표자회에서 공유된 의견도 담아 '정책 제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채택되면, 이와테 현 이외의 자치단체에서도 다민족 공생 사회의 노력에 외국인 자신이 관계를 지속 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준공식 및 기공식

지진으로 건물이 손상되어, 재건축 공사를 하고 있던 유치원과 보육원의 원사가 완성 되었습니다.



후쿠시마현 아이즈와카마치시 와카마치 성당 부속 성애 유치원에서는, 토호쿠 교구 신도, 졸업 원아, 마을회의 분들 등 120 명이 참석하여 3 월 20 일에 준공식 및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 건물의 홀은 한동안 와카마치 성당의 예배당 역할도 합니다. (사진 ①) 이와테 현 가마이시 신애 유아 학원은 작년 7 월 부터 임시 원사에서 보육을 실시했지만, 올해는 바닥도 반짝반짝 새로운 원사에서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사진 ②) 4 월 6 일에 열린 준공식에서는 새 원가도 만들어져, 아이들의 노랫 소리가 울려퍼집니다.



또한 4 월 1 일에는 지진에 의해 사용 금지되어 작년 해체된 주교좌 성당 기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아주 맑은 날씨였고, 신도, 공사 관계자가 함께 공사의 안전을 기도했습니다.



(사진 ③)

■이시노마키시 (미야기 현) / 외국인 피해를 위한 홈 헬퍼 자격 취득 강좌 (최종회)

미나미산리쿠, 케센누마시에 이어 3 번째 홈 헬퍼 2 급 자격 취득 강좌가 이시노마키시에서 개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산코 복지 대학의 협력을 얻어,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국적의 6 명의 수강생이 일본어 용어 공부, 침대를 이용한 실기 등의 단계를 거치며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차로 두 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에서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이 강좌는 지진에 의해 일을 잃은 외국인들이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한 자립 ·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다' 라는 목소리를 듣고 계획되었습니다. 개강 일에는 수강생의 아이들을 위한 보육도 실시합니다. 4 월말에 수료 예정입니다.

● 함께 걷자! 프로젝트의 2 년 감사와 기도 성찬식



일시 : 2013 年 5 月 25 日 (土) 오전 10 時

장소 : 센다이 기독교회 · 도호쿠교구 주교좌성당 임시성당

사식 : 주교 나타나엘 우에마쓰 마코토
(함께걷자! 프로젝트 대표, 일본성공회 수좌주교)

설교 : 사제 베드로 오마치 신야
(함께 걷자!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키아도 교구)

활동기록 (3/6~4/5)

가설지원

- 공작모임 / 오나노 가설 (가마이시)
- 요리교실 / (가마이시)
- 담화실 프로그램 / (가마이시)
- 감자배포 / (가마이시)
- 카드만들기 모임 / (가마이시)
- ▲장보기 버스 투어 / 나토리시
- ◆햇코나 (오차회) / 신지
- ◆햇시네마 (영화회) / 신지
- ◆훗코리카페 / 이와키시

그 외에도 ... 지압 마사지, 어린이 프로그램, 건강회복 프로그램, 네일사롱 등

외국인 지원

- ▲홈 헬퍼 2 급 자격증 취득 강좌 / 이시노마키
- ▲개별 지원 (어린이 학습 지원, 간행물의 해설, 직업 소개소 등 동행, 기타) / 이시노마키시,

다카쵸, 센다이

- ▲일본어 교실, 영어 강사 계발 세션 / 센다이
- ▲동일본 대지진 2 주년 기념 예배 / 센다이

장애자 지원

- ▲방문 / 센다이시 (마도카)
- ▲작업 보조 / 게센누마

기타

- ★대만 성공회 라이론 신 주교 일행 피해 지역 방문 /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현 각처
- ◆유치원 도움 / 후쿠시마 현내 여러 유치원
- ★각지에서 방문자, 자원 봉사자와 함께 피해 지역 순례 / 미야기 현, 신지 마을 등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기타 여러현에 있어서 활동을 나타냅니다. 지면 사정상 게재되어 있지 않은 활동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반 의 블로그를 참조하십시오. 홈페이지 : <http://www.nskk.org/walk/>



함께걷자! 프로젝트 소식지 제 20 호 2013 년 5 월 1 일 발행

「함께걷자! 프로젝트」사무국

OPEN 월~금 10:00~17:00 CLOSE 토·일·축

〒980-0830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고쿠분쵸 3-4-5 크라이스 빌딩 2 층

TEL : 022-265-5221 FAX : 022-748-5321 E-mail : walk@nskk.org web : <http://www.nskk.org/walk/>

현금을 보내 주시길 경우는 이쪽의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 우체국 00120-0-78536 (예금주 일본 성공회)